

# 제 1 교시 국 어

1. 다음에서 '여자'의 말하기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자: 이 사과 어디에서 샀어?  
 여자: 색깔이 붉고, 윤기가 흐르며, 과육이 단단한 사과가 나는 좋아. 새콤달콤하고 아삭아삭하면 더 맛있어. 우리 가족은 매일 아침에 사과를 꼭 먹어. 건너편 가게에서 살 수 있을 거야. 그 집 꿀도 참 맛있어.

- 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객관적인 사실만을 선택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④ 관심 없는 대상에 대해 억지 칭찬을 하고 있다.

2.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말	행동	의미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요.	+ 고개를 끄덕이며	⇨ 공감 표현
저런. 쫓쫓. 안됐군요.	+ ㉠	⇨ 동정 표현

- ① 차갑게 외면하며                      ② 무섭게 인상 쓰며
- ③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④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제문: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자.

I. 서론: 도서관의 이용 실태

II. 본론

1. 도서관 이용의 문제점

가. 내부가 어두워서 책을 읽기 힘들.

나. 서가 배치가 잘못되어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임.

다. 도서가 부족하여 정보를 찾기 어려움.

2. 해결 방안

㉠

III. 결론: 도서관 이용 활성화 촉구 ----- ㉡

3.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책 읽기가 편하도록 조명을 밝게 함.
- ② 도서관 개방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함.
- ③ 서가를 재배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임.
- ④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종류의 책을 구입함.

4. ㉡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표어를 제작하려 한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비유법과 청유형을 모두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할 것

- ① 도서관에서 성적도 높이고 지식도 쌓고!
- ② 도서관에서 찾은 지식, 생활 속에 도움 된다.
- ③ 도서관으로 오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있어요.
- ④ 도서관은 보물 창고! 함께 보물을 찾아봅시다.

5. 다음 규정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① 깻잎                      ② 뱃길                      ③ 빗물                      ④ 훗날

6. 밑줄 친 한자어를 고유어로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어폭력을 근절(根絶)해야 한다. → 뿌리째 없애야
- ② 곳곳에서 백성들이 봉기(蜂起)하였다. → 세차게 일어났다
- ③ 나는 그의 만행을 방관(傍觀)하고 있었다. → 옆에서 부추기고
- ④ 그는 나에게 어려움을 토로(吐露)하였다. → 모두 털어놓았다

7. 다음 문장과 동일한 오류가 드러난 것은?

그녀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친구에게 인사를 했다.

- ① 뜰에 핀 꽃이 여간 탐스럽다.
- ② 선생님께서 너 오시라고 했어.
- ③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를 사랑한다.
- ④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많다.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거슨 상하귀천이 다보게 ㉡흠이라 또 국문을 이러케 귀절을 떼여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말을 자세이 ㉣알어 보게 흠이라

-「독립신문 창간사」-

- ① ㉠: ‘\`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 ② ㉡: 이어적기를 사용하고 있다.
- ③ ㉢: 명사형 어미 ‘기’를 사용하고 있다.
- ④ ㉣: 모음조화가 파괴된 형태이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블로 만나려 한다.

별써 ㉢ 술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 흐르는 물로 만나자.

[A]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9.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정법을 반복하여 소망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명령형으로 종결하여 화자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의성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더욱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10. ㉠~㉣ 중 함축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11. [A]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
- ②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삶
- ③ 끊임없이 노력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삶
- ④ 서로에게 생명력을 북돋우며 화합하는 삶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진사 정원은 주차 단속을 하는 다림을 알게 되고 그녀에게 끌리게 된다. 그러나 그는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기에 그녀가 사진관에 찾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지만 할 뿐 마음을 털어놓지는 못한다. 둘은 놀이 공원에 놀러 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점차 가까워진다. 그러다 정원은 상태가 갑자기 악화 되어 병원에 실려 간다.

S# 96. 사진관 앞(낮)

사진관은 여전히 문이 잠겨 있다. 다림은 편지를 꺼내어 문틈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나 좁아서 들어가질 않는다. 편지 겹봉이 많이 구겨진다. 다림은 구겨진 편지 봉투를 가방에 넣고 새 봉투에 편지를 넣고 몸을 구부려 문 밑으로 집어넣는다. 문 안으로 들어가는 편지.

S# 97. 병원 입원실(밤)

네 명의 환자들이 같이 쓰고 있는 병실에는 보안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고 나직하게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정원은 창가에 누워 있고, 보호자 간이침대에는 정숙이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다. 잠을 자고 있는 정원의 얼굴. 좋은 꿈이라도 꾸 듯이 정원은 살며시 미소 짓고 있다.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는 정원.

정숙 오빠 깎어? 아프진 않지?

정원 응.

정원은 멀뚱히 천장을 바라본다.

정숙 무슨 생각해?

정원 갑자기 아카시아 냄새가 맡고 싶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삼거리 동산이 있었잖아. 밤늦게 버스가 지날 때는 아카시아 냄새가 바람을 타고 버스 안으로 들어왔었어.

정숙 오빠. 어떤 아가씨하고 친하게 지낸다면? 연락해서 오라고 할까?

정원 ㉠ 됐어……. 보고 싶은 사람 없어.

눈을 감은 정원. 정숙이 정원에게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본다.

S# 98. 도로(낮)

열린 창문으로 고개를 내민 다림. 바람에 헝클어진 여자의 머리. 멍하니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다림.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들. 거리를 달리는 주차 단속 차량.

S# 99. 사진관(낮)

잠긴 사진관 앞에서 서성거리는 다림. 다림은 닫혀 있는 사진관 문의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본다.

S# 100. 다른 사진관(낮)

가만히 의자에 앉아 사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다림.

(소리) 사진 나왔어요.

다림,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 오승욱 · 신동환 · 허진호, 「8월의 크리스마스」 -

12.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배경의 전환이 어렵다.
- ② 주로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장과 막을 구성 단위로 사용한다.
- ④ 모든 사건은 무대 위에서 진행된다.

13.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림은 정원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잊으려 노력하고 있군.
- ② 정숙은 다림의 존재를 알고 오빠에게 만남을 제안하는군.
- ③ 정원에게는 아카시아 냄새와 연관된 기억이 있군.
- ④ 다림은 편지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려 했군.

14. ㉠과 <보기>의 공통적인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山)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西山)에는 해진다고  
지저칩니다.

앞 강(江)물, 뒤 강(江)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 김소월, 「가는 길」 -

- ① 분노      ② 희망      ③ 그리움      ④ 반가움

[15~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나) 우리라 우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리라 새여.  
㉡ 넬라와<sup>1)</sup> 시름 한<sup>2)</sup>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다) 이령공 더령공 혀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라) 가다니 비브른 도괴 설진<sup>3)</sup> 강수를<sup>4)</sup> 비조라.  
㉣ 조롱곳<sup>5)</sup> 누르기 밭와 잡스와니 내 엇디 흐리잇고.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

- 1) 넬라와: 너보다.      2) 한: 많은.  
3) 설진: 털익은 또는 (술의 농도가) 진한.  
4) 강수를: 강한 술을.      5) 조롱곳: 조롱박꽃.

1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후렴구를 통해 연을 나누고 있다.  
② 계절의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반복을 사용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④ ‘ㄹ, ㅇ’ 음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소박한 삶을 동경하고 있다.  
② ㉡: 시적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  
③ ㉢: 외로운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다.  
④ ㉣: 힘겨운 현실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계집이로다. 네가 진정 열녀로다. 네 정절 굳은 마음이 어찌 그리 고우냐. 당연한 말이로다. 그러나 이몽룡은 서울 양반의 아들로 이미 명문 귀족의 사위가 되었으니, 일시 사랑으로 잠깐 데리고 논 너 같은 계집을 잠시라도 생각 하겠느냐? 네 어여쁜 정절이 너를 백발 할미로 혼자 늙게 하면 어찌 불쌍하지 않으랴. 네가 아무리 수절을 한들 누가 열녀 포상 이라도 할 줄 아느냐? 그것은 버려 두고라도 네가 고을 관장에게 매이는 것이 옳으냐, 그 어린아이에게 매이는 것이 옳으냐? 네가 말을 좀 해 보거라.”

춘향이 여쭙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모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 차례의 분부가 이와 같으니 사는 것이 죽은 것만 못합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옆에서 듣고 있던 회계 생원이 사또를 거든다.  
“여봐라. 어, 그년 참 요망한 년이로구나. 하루살이 같은 인생, 좁은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미모인데 네가 여러 번이나 사양할 게 뭐 있느냐? 사또께서 너를 추앙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너 같은 창기가 수절이 무엇이며 정절이 무엇이냐? 구관을 보내고 신관 사또를 맞이하면서 기생이 모시는 것은 법전에도 나와 있으니 쓸데없는 소리 마라. 너희같이 천한 기생들에게 ‘충렬(忠烈)’ 두 글자가 왜 있겠느냐?”

이때 춘향이 기가 막혀 천연스레 앉아 따지고 든다.  
“충효열에 위아래가 어디 있소? 자세히 들어 보시오. 기생 말 나왔으니 기생으로 말합시다. 충효열녀 없다고 하니 날날이 아뢰리다. 황해도 기생 농선이는 임을 기다리다 동선령에서 얼어 죽었고, 선천 기생은 아이였지만 갈 곳 몰라 헤매던 어린 도령 돌보느라 칠거지악<sup>1)</sup>에 들어 있고, 진주 기생 논개는 우리나라의 충렬이라 충렬문에 모셔 놓고 봄가을로 제사를 올리고 있고, 청주 기생 화월이는 삼층 누각에 올라 있고, 평양 기생 월선이도 충렬문에 들어 있고, 안동 기생 일지홍은 살아서 열녀문을 받은 후에 정경부인에 올랐으니 기생을 해치지 마옵소서.”

- 작자 미상, 「춘향전」 -

1) 칠거지악(七去之惡): 예전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일곱 가지 허물.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열녀 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② 전기(傳奇)적 요소가 빈번하여 비현실적이다.  
③ 망국(亡國)으로 인한 백성들의 울분을 담고 있다.  
④ 개화기에 단절되어 현대 문학으로 계승되지 못하였다.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기>

ㄱ. 춘향은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한다.  
ㄴ. 변 사또는 정절을 지키려는 춘향을 끝까지 응원한다.  
ㄷ. 회계 생원은 변 사또의 입장을 지지하며 말한다.  
ㄹ. 춘향은 다른 기생보다 뛰어난 자신의 인품을 자랑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9. [A]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중모리  
 “기생에게 충절이 없다 하니 날날이 아뢰리다. 청주 기생 매월이는 삼층사에 올라 있고, 안동 기생 일지홍이는 살아 열너문 세워 있고, 선천 기생은 아이로되 사서삼경 알았으니, 기생에게 충이 없소 열너가 없소? 대부인 수절이나 소녀 춘향 수절이나 수절은 일반인데, 수절에도 위아래가 있소?”  
 - 작자 미상, 「춘향가」 -

- ① <보기>는 장단에 맞추어 창으로 불리었다.
- ② [A]는 독백으로 인물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와 <보기>는 향유층이 양반 계층으로 한정되었다.
- ④ [A]와 달리 <보기>는 예시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거미줄의 형태는 중심으로부터 ㉠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는 둥근 그물로, 짜임이 어찌나 완벽한지 곤충의 입장에서는 마치 뻑뻑하게 쳐 놓은 튼튼한 고기잡이 그물과 다름없다. 이 둥근 그물을 짜기 위해 거미는 먼저 두 물체 사이를 팽팽하게 이어주는 ‘다리실’을 만든다. 그다음 몇 가닥의 실을 뽑아내 별 모양으로 주변 사물들과 중심부를 연결한다. 두 번째 작업으로, 거미는 맨 위에 설치한 다리실에서부터 실을 뽑아내 거미줄의 가장자리 틀을 완성한다. 그런 후 중심과 가장자리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세로줄을 친다. 세 번째 작업은 ㉡ 임시 가로줄을 치는 것이다. 이 가로줄은 거미가 돌아다닐 때 발판으로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점성이 없어 달라붙지 않고 튼튼하다. 나중에 거미줄을 완성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다니면서 먹어 치웠다가 필요할 때 다시 뽑아내 재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영구적이고 끈끈한 가로줄을 친다. 중심을 향해 가로줄을 친 후 다시 바깥쪽으로 꼼꼼히 치기도 하면서 끈끈하고 ㉢ 탄력 있는 사냥용 거미줄을 짠다. 거미는 돌아다닐 때 이 가로줄을 밟지 않으려고 각별히 조심한다고 한다. 거미의 발끝에 기름칠이 되어 있어 이 실에 달라붙지 않는다는 설도 있다. 이렇게 거미줄을 완성하면 거미는 가만히 앉아 먹잇감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거미줄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시간 반이 안 되며 사용되는 실의 길이는 최대 30미터다.

거미줄은 거미와 곤충 사이에 벌어지는 끊임없는 생존 경쟁이 낳은 진화의 산물이다. 일례로 그물을 이루는 견사(실)는 눈에 거의 띄지 않게끔 진화했다. 그래서 1초에 자기 몸길이의 57배 만큼 날아가는 초파리의 경우, 몸길이의 세 배 거리까지 접근하기 전에는 눈앞의 재앙을 ㉣ 감지하지 못한다.

- 리처드 코니프, 「거미줄, 죽음을 부르는 실」 -

20.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거미줄 치기의 첫 번째 작업은 다리실을 만드는 것이다.
- ② 거미는 이동을 위해 점성이 없는 임시 가로줄을 친다.
- ③ 사냥용 거미줄은 거미가 돌아다닐 때 발판으로 쓰인다.
- ④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거미줄은 생존을 위해 진화된 결과이다.

21. 윗글에 대한 읽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정과 건문을 이해하고 감상에 공감하며 읽는다.
- ② 새로운 정보를 파악하고 사실인지 확인하며 읽는다.
- ③ 필자의 주장을 파악하고 근거의 타당성을 따지며 읽는다.
- ④ 글의 미적 구조를 이해하고 인물의 정서를 파악하며 읽는다.

22.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방사형: 중앙의 한 점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간 모양
- ② ㉡ 임시: 미리 얼마 동안으로 정하지 않은 잠시 동안
- ③ ㉢ 탄력: 용수철처럼 튀거나 팽팽하게 버티는 힘
- ④ ㉣ 감지: 감추어진 사실을 깊이 살피어 조사하는 것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책은 벗입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반가운 벗입니다. 배움과 벗에 관한 이야기는 “논어”의 첫 구절에도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수험 공부로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게 독서는 결코 반가운 벗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고 싶은 불행한 만남일 뿐입니다. 밑줄 그어 암기해야 하는 독서는 ㉠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못 됩니다.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을 열고,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삼독(三讀)입니다. 먼저 글을 읽고 다음으로 그 글을 집필한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그 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필자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 발 딛고 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 최종적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험 공부 다음으로 많은 것이 아마 교양을 위한 독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양 독서 역시 참된 독서가 못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을 가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신영복, 「책은 먼 곳에서 찾아온 벗입니다」 -

2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②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주제를 명료화하고 있다.
- ③ 권위 있는 말을 인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24. ㉠과 가장 가까운 독서를 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책을 많이 봤더니 논술 시험에 합격하였어.
- ② 그 책을 통해 나와 이 시대의 맥락을 깨달았어.
- ③ 이 책을 읽고 모임에서 지식을 자랑할 수 있었어.
- ④ 책을 많이 읽었더니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게 되었어.

25. ㉡에 가장 적합한 접속어는?

- ① 그리고      ② 그런데      ③ 그러나      ④ 왜냐하면